

## 맞벌이 가정 조모의 손자녀 양육경험과 양육갈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조모와 취업모 관점에서\*

김미옥\*\* 송승민\*\*\* 이사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hild-rearing Experience and  
Conflict of Grandmothers in Dual-income Families:  
from the Grandmother's and Working Moms' Point of View

Kim, Mee Ok Song, Seung Min Lee, Sa Rah

이 연구의 목적은 맞벌이 가정에서의 조모들의 손자녀 양육참여와 갈등을 알아봄으로써 공동양육자인 조모세대와 성인자녀세대의 조모 양육에 관한 견해들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정립을 하여, 좀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경기도 지역의 영·유아기 손자녀를 양육하는 6명의 조모와 그들의 성인자녀 중 6명의 취업모 총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개방형 반구조 면접지침에 따른 심층면접과 전자우편,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78개의 의미단위와 15개의 하위구성요소, 6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6개의 구성요소는 (1) 조모의 양육경험: 손자녀 양육을 통한 조모의 이중역할 (2) 취업모의 양육경험: 취업모의 모성이데올로기의 갈등 (3) 조모 관점에서의 긍정적 효과: 조모의 생생감 증가와 자녀세대와의 친밀한 유대관계형성 (4) 취업모 관점에서의 긍정적 효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5) 손자녀 양육경험의 부정적 효과: 조모의 양육 스트레스 증가와 취업모의 낮은 양육 효능감 (6) 양육갈등: 두 명의 엄마와 충돌하는 양육 가치관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양육태도와 양육기술에 대한 두 엄마의 다른 가치관의 충돌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 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 맞벌이 가정, 손자녀 양육, 양육참여, 양육갈등, 조모

\* 본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259).

\*\* 제 1저자: 수원대학교대학원 아동학과 박사과정(E-mail : lookatworld@naver.com)

\*\*\* 교신저자: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부교수(E-mail : smsong@suwon.ac.kr)

\*\*\*\* 공동저자: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 I. 서론

현대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됨에 따라 직업의 전문화, 다양화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여성들의 고학력화 경향으로 여성이 직업적 능력을 갖추어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2014년 기혼 여성 956만명 중 경제활동 참여인구가 약 566만 명으로 전체 여성의 59.2%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어(통계청, 2015), 맞벌이가정의 형태는 현대사회 가족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들은 높은 자아가치인식, 사회활동으로부터의 보상, 심리적 보상, 경제적 이로운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활양식에 만족하지만(강기정, 박수선, 2007),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심적 부담감을 받고 있으며, 직장을 계속 다닐지에 대해 갈등을 하고, 전업주부처럼 온종일 아이를 잘 보살펴주지 못하여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김경은, 장연집, 2008; 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 2013; 서미정, 2011; 양소남, 신창식, 2011). 자신의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에서 갈등하고 있음은 취업모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서미정, 2011).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갈등은 취업모의 양육부담, 고용불안, 교육비 부담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킨다(박보영,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취업모들은 시간관리 측면에서 양육의 어려움과 돌봄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중부담(주은선, 김사현, 김민성, 2014)을 갖고 있으며, 적절한 양육자의 부재와 좋은 양육자 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마미정, 2008; 서미정, 2011). 또한, 첫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후속출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편의 양육참여와, 적절한 주중 양육참여시간, 부부간의 육아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김은경, 2014; 김종훈, 양소영, 성지현, 2013; 이정원, 2007; 이정원, 유해미, 김문정, 2014; 임현주, 이대균, 2013; 정은희, 최유석, 2013). 취업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중요하지만(김성경, 2011, 남효정, 이숙현, 2011; 양미경, 1996; 이영환, 2008), 아직까지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역할 사고틀에 머물러 있고 실제 양육행동과 양육참여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안재진, 2011; McBride, & Mills, 1993). 취업모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아버지가 가지는 양육의 부담감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역할 기대와 수행에 따른 갈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맞벌이 부부 및 가족의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강기정, 박수선, 2007). 이러한 가정의 스트레스는 일과 가족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며, 일과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전이 될 수 있다(Grzywacz, Almeida, & McDonald, 2002).

취업모의 양육기관 및 양육자 선택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근로자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70.0%로 가장 많았고, 영국의 근로자들은 배우자의 직접양육 39.6%, 친인척양육 32.1%, 보육시설 11.2%의 순으로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승아, 2010).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취업모 가정의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영유아가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가 50.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2). 취업모들은 만 2세미만의 아이를 남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 비용부담, 양육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조부모에 의한 양육을 선택한다(노성향, 2010). 조부모의 양육참여가 증가하면서 조부모들은 보편적인 역할인

일상적 돌봄 활동과 함께 교육적 역할기대를 넘어 취업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양육전담자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김미혜, 성기옥, 팽경희, 최희진, 최소영, 2011; 김중숙, 2002).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견해를 살펴보면, 조부모의 관점에서 손자녀 양육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며,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김은주, 서영희, 2007; 원서진, 2011; 이현지, 윤은주, 2011; 조운주, 2012; Bundy-Fazioli, Fruhauf, & Miller, 2013; Kelley, 1993; Minkler, Fuller-Thomson, & Miller, Driver, 1997; Musil, 1998; Musil, Gordon, Warner, Zauszniewski, Standing, & Wykle, 2011), 양육에 참여하는 조모들의 건강상태가 비양육조모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육의 즐거움으로 인해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이영숙, 박경란, 2013; 전해정, 조규영, 박민경, 한세황, Wassel, 2013; 정재원, 김문정, 2010; Reitzes & Mutran, 2004). 이와 같이 조부모의 양육참여가 그들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극화된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취업모들은 대리자녀양육자로서 조부모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여러 연구들이 조부모양육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만(강유진, 2011; 원서진, 2011; 전해정 등, 2013), 실제로 행해지는 양육은 조모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점과 조모의 손자녀 양육(김미영, 2011; 김운주, 방미란, 2011; 김은정, 정순돌, 2011a; 김은정, 정순돌, 2011b; 이지연, 정경미, 김원경, 2008; 이현지, 윤은주, 2011; 이은희, 하주영, 이정란, 황은희, 2009)에 관한 보고에 의해서 조모의 양육에 대해 초점을 맞춰 알아보기로 한다.

취업모와 조모의 관계면에서 보면, 김은정(2013)은 손자녀 양육참여 조모와 취업모간의 가족 관계 분석에서 조모와 취업모 상호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집단은 22.3%이고, 둘 다 관계가 좋지 않다고 지각하는 집단은 19.3%, 조모는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나 취업모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은 14.6%, 취업모는 관계를 좋게 지각하나 조모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은 49.9%라고 보고하였다. 조모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적절한 양육자라고 생각하지만, 상호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집단보다, 관계가 좋지 않다고 지각하는 집단이 많다는 것은 양육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육의 갈등은 가족 내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Musil, Warner, Zauszniewski, Jeanblanc, & Kercher, 2006). 가족갈등이란 가족 내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에게 가치 있는 희소 자원의 배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할 때 그러한 말이나 드러난 행동으로(김중숙, 1997), 가족갈등은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갈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양육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조모의 어려움으로는 자신을 위한 개인시간 부족, 손자녀의 양육에 따른 배우자 및 성인자녀와 겪게 되는 다양한 갈등, 양육과 가사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부담감, 체력저하를 들 수 있다(Lumpkin, 2007; Sands & Goldberg-glen, 2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지희, 노상경 그리고 권경숙, (2008)은 성인자녀들이 부모인 조모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의견이 상충할 때라고 보고하고 있고, 김은주와 서영희(2007)는 다음 손자녀를 돌봐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길 때와 가족들과의 내적 갈등이 생길 때, 경제적인 부담을 있을때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김미혜 등(2011)은 손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손자녀 양육의 대가가 없는 경우,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근로나 소득활동을 중단 또는 단축한 경우에 갈등을 보인다고 하며,

김미영(2001)은 손자녀를 양육한 기간이 길거나 돕는 사람이 없을 때, 자녀와 의논정도가 낮을 때,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취업모 입장에서의 조모 양육의 어려움은 조모과의 관계유형과 양육을 맡긴 자녀수에 따라 조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김은정, 2014), 자녀의 친조모인 경우와 맡긴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취업모가 인식한 조모와의 관계는 약간 높은 수준의 관계라고 분석하고 있다(김은정, 2014).

이렇듯 주양육자가 조모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양육에 관한 어려움은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취업모들의 조모 양육참여로 생기는 어려움과 갈등의 요인들은 모호하게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 또한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더불어 손자녀 양육참여와 양육갈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강유진, 2011; 김윤주, 방미란, 2011; 오진아, 2006; 원서진, 2011; 이영숙, 박경란, 2013; 이현지, 윤은주, 2011; 전해정 등, 2013; 정재원, 김문정, 2010; 조운주, 2012). 이에 반해 질적 연구는 조모만을 연구 참여자로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김윤숙, 전연우, 조희숙, 2012; 노상경, 2006; 김은정, 정순돌, 2011a; 김은주, 서영희, 2007; 배지희 등, 2008; 이재림, 2013; 이은희 등, 2009), 취업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김인지, 이세인, 이숙현, 2010)와 취업모와 조모 모두 참여자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연구(이하정, 2005)는 매우 드문 편이다. 양육참여와 갈등의 문제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견해들로, 현대 가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분석을 통한 일상생활 또는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양성은, 2006). 미시적 분석이 가능한 심층면접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생각 등을 직접 들어보고 그들의 경험, 관점과 자연스러운 일상의 맥락에서 벌어지는 손자녀 양육 가정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김인지 등(2010)의 연구에서는 공동 양육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의 감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면접하고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했으나, 연구대상자들의 취업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양육경험과 양육갈등을 다루지는 않았다. 또한, 취업모와 조모를 참여자로 함께 심층면접을 실시한 이하정(2005)의 연구는 조모세대와 모세대의 양육문화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고, 연구시점이 2005년으로 지금 조모 세대의 양육경험이나 갈등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현재 영유아기의 손자녀를 두고 있는 조모는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된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인구 제어의 역할을 한 국가적 정책이 나타났던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며, 2010년을 기준으로 이 세대의 인구는 총 7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2). 현재 그들은 노년초기의 노인들로서, 이전 세대의 노인들과는 다른 삶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의 특징은 현재의 고령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 집단이며, 높은 경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가족 중심적이며, 자녀중심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강상경, 2012). 취업모, 즉, 성인자녀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고학력을 가진 능력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배워나간 80년대 이후에 성장한 세대들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두 세대의 관점에서 양육갈등을 이해하고 통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와 그의 자녀 세대 취업모 모두로 하였다. 이는 같은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를 알아보고 아동의 양육이라는 공동의 목표 속에서 각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양육의 견해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조모와 취업모의 두 세대의 관점에서 조모 양육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의 삶의 만족감은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은정, 정순돌, 2011b), 조모들의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성인자녀와의 갈등, 취업모가 느끼는 양육의 갈등을 서로 이해하는 것은 각자의 심리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 조모와 취업모가 각자 느끼는 조모 양육참여의 현실과 양육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양육갈등을 탐색함으로써 손자녀 양육을 통해 나타나는 가족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조모의 손자녀 양육참여로 나타나는 조모와 취업모의 양육경험은 어떠한가?  
 2. 조모의 손자녀 양육참여로 나타나는 조모와 취업모의 양육갈등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의 H시와 S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들 중 맞벌이를 하고 있는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영·유아기 손자녀를 적어도 6개월 이상 양육하고 있는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중 6명의 조모와 그들의 성인자녀 중 맞벌이를 하고 있는 취업모로 선정하였다. 조부모라는 조모가 손자녀 양육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모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김은주, 서영희, 2007; 배지희 등, 2008).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연구를 그만둘 권리, 연구의 주요 목적과 자료수집에서 사용되는 절차들, 응답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언급, 연구 참여와 관련되어 알려진 위험에 대한 서술, 연구 참여자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연구자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서명의 내용(Creswell, 2007)을 포함한 동의서를 받았다

<표 1> 연구 참여자(조모)의 일반적 배경

연구 참여자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양육비	손자녀유형	손자녀연령	양육기간	자녀와의 동거여부
조모 1	58세	고졸	유	120만원	외손녀	4, 6세	5년	비동거
조모 2	62세	대졸	유	50만원	외손녀	7세	8년	비동거
조모 3	63세	초졸	유	40만원	친손녀	6, 12, 16세	15년	비동거
조모 4	59세	고졸	유	70만원	외손녀	5, 7세	6년	비동거
조모 5	58세	고졸	무	50만원	외손자	4세	3년	비동거
조모 6	60세	초졸	유	70만원	친손녀	5, 8세	7년	비동거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조모들은 경기도 H시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S시의 민간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의 조모들로서 정규반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돌봄 역할을 하고 있다. 손자녀 양육기간은 3년에서 15년 사이이고, 연령은 58세에서 63세에 이르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위의 연구 참여자들의 딸이나 며느리인 취업모는 6명이었고, 연령은 32세부터 38세에 분포되어 있고, 전일제 근무를 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취업모)의 일반적 배경

연구 참여자	연령	학력	배우자유 부	취업모의 월소득	출퇴근 시간	양육시간
취업모 1	33세	대졸	유	250만원	08:00 ~ 20:00	2시간
취업모 2	35세	대졸	유	500만원	06:30 ~ 21:00	거의 없음
취업모 3	38세	전문대졸	유	200만원	08:40 ~ 19:00	2시간
취업모 4	34세	대졸	유	280만원	08:40 ~ 18:00	3시간
취업모 5	32세	대졸	유	220만원	07:00 ~ 20:00	1시간
취업모 6	38세	대졸	유	300만원	07:30 ~ 21:00	거의 없음

## 2. 자료 수집

질적연구의 한 방법인 심층면접은 질적연구에서 흔히 이용되는 자료수집 방법의 하나로, 양적 연구방법에서는 다룰 수 없는 개인의 경험과 사고과정, 감정과 같은 현상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 수 있게 한다(Irving, 2009). 면접은 단순한 일상생활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학술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의도된 상호작용으로,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참여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Kvale, 1996).

본 연구에서는 조모와 취업모의 경험, 사고과정, 감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접을 2014년 5월 12일부터 2014년 12월 23일까지 진행하였다. 조부모의 양육참여와 양육갈등에 대한 학문적 문헌과 인터넷 및 신문 기사에서 얻은 정보를 참고로 개방적인 질문(open-ended questions)과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정보 기록을 위한 면접 지침서를 만들었다. 조모 연구 참여자들의 면접 질문내용은 <손자녀양육의 동기> <조부모님들의 양육참여의 경험> <하루의 생활> <양육과정에서 좋은 점과 힘든 점>을 근거로 하였고, 취업모 연구 참여자들의 면접 질문내용은 <조부모님의 양육에 대한 경험> <갈등에 놓였던 상황> <조부모 양육의 장단점>등이다. 면접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30분 정도로 2~4회 진행되었다. 면담참여자를 위해 면담 장소를 취업모의 자녀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과 연구 참여자의 집 중에서 선택하게 하여 진행하였다. 1차 면담에서는 연구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연구취지와 일정,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

였고 주로 래포형성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며, 조모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손자녀 양육에 대한 계기와 전반적인 양육 경험과 취업모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기게 된 계기와 하루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2차 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양육 경험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 그리고 자녀세대 혹은 부모세대와의 양육차이에 관한 경험 면담이 진행되었다. 2차 면담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가 획득되지 않았을 때 3~4차 면담이 이루어졌고, 전자우편 메시지(e-mail message)를 통하여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면담은 음성파일로 녹화한 후 전사하였다.

### 3.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에 Giorgi(1985)가 제안한 자료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자료분석의 결과를 자료수집에 재반영하여야 함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I-통찰력(Insight), 직관(Intuition), 인상(Impression)에 의존(Dey, 1995, p.78; Creswell, 2010에서 재인용)하여, 연구기간동안 계속 이어졌다. Giorgi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전체를 인식하기 위해 녹취된 음성을 반복적으로 들어봄으로써 전체적인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후 전사(transcription)하여 전사된 필사본을 여러 번 읽고, 전체 진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얻어내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단계에서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각 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혀주는 부분에 대하여 줄단위 분석을 통해 주요 의미단위(meaning unit)들을 추출하고, 셋째, 의미단위를 조합하여 유사한 개념들을 묶어 범주화한 후 범주들 간의 주제를 파악하여 주제화(clusters of meaning)한 후, 중심의미를 학문적 용어로 변형시켜 연구자의 언어로 기술하였다. 넷째, 전 단계에서 변형된 의미단위를 구조화시켜서 각 참여자의 양육 경험과 양육갈등을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구성요소(structural description)를 도출하였다. 구성요소는 기성품이라기보다는 맞춤형이며, 변형되는 것이고 ‘구성되는 것’ (Huberman & Miles, 1994)이기에 연구자의 상상력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 해석되어졌다. 78개의 의미단위를 15개의 하위구성요소와 6개의 구성요소로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취업모들과 조모들의 경험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자, 전사된 면담 자료와 현장기록노트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여 연구 참여자로부터 점검(member-checking)을 받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경험에 다가서기 위해 공동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하였다(Lincoln & Guba, 1985). 또한 동료 검토를 위하여 연구경험이 풍부한 아동학 교수 1인과 연구방법, 의미, 해석에 대해 논의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면접된 내용을 78개의 의미단위로 의미를 요약하여,

15개의 하위구성요소와 6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조부모의 양육경험과 양육갈등의 일반적 구조를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조모의 양육참여와 양육갈등의 구성요소

의미단위요약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성인자녀의 경제능력향상을 위해 자발적 참여 성인자녀의 양육어려움을 지원 맞벌이 성인 자녀를 생각하는 애처로움과 헌신 성인 자녀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희생 아이 돌봄 시간 부족으로 인한 적절한 보육대안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손자녀 양육을 통해 성인 자녀에 대한 조모의 지속적인 부모역할 수행	조모의 양육경험: 손자녀 양육을 통한 조모의 이중역할
손자녀 출생 직후부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양육 지원 하루종일 엄마 역할을 하는 조모 손자녀의 발달을 돕는 일상적 보살핌 놀이와 교육을 도와주시는 조모	손자녀의 엄마 역할을 하는 조모	
취업모의 자녀와의 애착상황에 대한 불안감 전업주부와 같이 육아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오는 죄책감 양육에 대한 서투름과 어려움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	취업모의 모성이데올로기 돌봄 시간 부족으로 인한 죄책감	취업모의 양육경험: 취업모의 모성이데올로기의 갈등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있어야 하는 자녀들을 위한 손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의 정신적인 만족감 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이 되는 손자녀 양육 경제원 지원도 아깝지 않은 손자녀 사랑 재미있고 즐겁고, 충만한 생활을 하는 조부모 양육을 위해 손자녀와 가까운 거리 형성	생성감 증가 자녀세대와의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	조모 관점에서의 긍정적 효과: 조모의 생성감 증가와 자녀세대와의 친밀한 유대관계형성
조모와 성인자녀간의 높은 접촉적 결속력 살림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 감소 자녀들이 아플 때 적절한 지원체계 양육으로 인해 부부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 감소 배우자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좋은 관계 형성 직장조직몰입도 증가와 일과 가정생활에서의 심리적 안정	양육 부담감과 부부간의 양육갈등 감소	취업모 관점에서의 긍정적 효과: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맞벌이 가정의 적절한 자녀 양육 대안 자녀 양육면에서의 심리적 안정 폭넓은 사회관계형성을 위한 자녀교육의 기회 조모의 부지런한 생활습관 습득 적절하고 온정적인 양육행동학습의 기회 조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배움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조모 양육	
장시간의 손자녀 돌봄으로 인해 운동시간의 부족 장시간의 손자녀 돌봄으로 인해 취미생활시간의 부 족 장시간 손자녀 돌봄의 어려움	여가시간의 부족과 종일양육에 대한 부담감	손자녀 양육경험의 부정적 효과: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증가와 취업모의 낮은 양육 효능감



밤늦게까지 손자녀를 돌보는 종일양육의 어려움		
마음과 다르게 스트레스를 표출		
건강유지 두려움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걱정		
양육참여를 그만두고 싶은 조부모		
생각대로 되지 않는 감정 조절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	정신적	
쉴 틈 없는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고부간 동거시 생활면에서 느껴지는 갈등		
집안 살림과 손자녀 양육의 이중고		
양육과 살림에 대한 스트레스		
예측할 수 없는 조모의 건강에 대한 걱정		
아이들 양육에만 전념하는 조모에 대한 미안함	의존적인	취업모의
도움받고 싶은 마음	낮은	양육 효능감
양육과 일을 완벽하게 다 잘 할 수 없음		
성인자녀들이 자녀양육을 조부모님께 미룸		
미래에도 조모가 자녀양육을 도와주시기 원함		
손자녀를 위한 훈육		
손자녀들이 말을 안들을 때의 어려움		
양육참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정보의 필요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싶은 조모	손자녀의	
여러 양육자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	엄마로서의	고뇌
손자녀 나쁜 습관 고쳐줄 때의 어려움		
더 나은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음		
양육 정보 습득의 다양함	엄마	답지 않은
부모교육의 기회	것에	대한
양육할 시간이 없음	고뇌	
조모: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불만		
취업모: 허용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불만		
취업모: 버릇없어질까봐 걱정함		
조모: 경험적 양육을 못미더워하는 성인자녀들에 대한 불만	양육태도의	충돌
취업모: 이전의 가치관으로 손자녀를 키우는 조모		
취업모: 조모의 경험에만 의존한 상황대처에 대한 불안감		
취업모: 조모 앞에서 훈육할 때 조심스러움		
조모: 손자녀의 습관 형성시 어려움		
취업모: 자연탐색 제공과 신체적 활동시간부족에 대한 불만		
조모: 사교육에 대한 견해차이		
취업모: 사교육에 대한 견해		
취업모: 제한설정 없는 비교육적인 매체 영향에 대한 불만	양육기술의	충돌
조모: 수면과 식습관 문제		
취업모: 수면과 식습관 문제		
조모: 훈육 대 정서적 안정		
취업모: 소독, 위생, 청결에 대한 소홀함		

양육갈등: 두 명의  
엄마와 충돌하는 양육  
가치관

## 1. 손자녀 양육을 통한 조모의 이중역할

### 1) 손자녀 양육을 통해 성인 자녀에 대한 조모의 지속적인 부모역할 수행

조모들은 성인자녀들이 자신의 직업과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신뢰를 주며, 살림과 같이 일해도 표가 안나는 일들은 본인이 하겠노라고 자처하는 성인자녀의 어머니 역할과 손자녀들의 일상적 돌봄부터 어린이집 등하원, 교육적인 면까지 신경 쓰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이중 역할을 하고 있다. 조모들은 한평생 성인자녀세대에게 학업과 취업에 관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노력으로 인해 얻어진 자녀들의 직장생활이 살림과 양육으로 인해 방해 받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는 일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조모 자신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중 역할을 수행함은 선행연구에서 부모로서의 도리와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에 참여했다는(김은정, 정순돌, 2011; 김은주, 서영희, 2007)의 연구와 상반되며, 손자녀를 위해 자발적 참여를 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백진아, 2011; 이은희 등, 2009; 최인희, 2014). 조모가 성인자녀의 부모역할을 지속하는 이유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 노년이 긴 이 시대에 아직은 스스로를 노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조모 세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가정을 돌보면서 일해야 하는 취업모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딸애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젊었을 때 벌어야지 좋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애를 낳으면 봐준다고 했어요. 제가 애 키우는 걸 좋아하고 애를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키워준다 그랬고 애기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키웠어요. 제가 딸을 위하는 마음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살림이나 육아 안 시키고 제가 더 많이 해요.

(외조모 2)

엄마가 먼저 너 애기나면 봐줄게. 엄마가 아직 젊고 힘이 있는데하며, 애기 봐줄꺼라고 하시면서 직장생활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취업모 2)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기만 봐도 힘들다하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딸을 키웠어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밥 한 번을 안 시켜본거야. 그러니까, 살림하고 애들 키우는게 힘들다고 하지. 자식들 퇴근이 보통 지금은 이제 (나아졌는데...) 바쁘면 아홉시 열시되고 그러더라고요. 올 일 년 동안 힘들었어요. 딸이 올해 진급이어서 그래서 진급을 하고 쉬는 거예요. 저녁에 늦게 열시도 좋고 주말도 좋고 막 이러 이러고 가니까 그렇게 00이가 다섯 살 동안 그렇게 보냈어요.

(외조모 1)

### 2) 손자녀의 엄마 역할을 하는 조모

본 연구에 참여한 조모들은 손자녀의 일상적 돌봄부터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돕는 활동과 교육에 관심가지기 등의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양육의 역할은 분유, 이유식먹이기, 기저귀갈기, 어린이집 보내기와 같은 일상적 돌봄에서부터 손자녀와 놀이하고 책 읽어주고 게임도 하는 발달적 지지까지 일반적으로 엄마가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손자녀의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 커뮤니티에 들어가려는 노력 등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엄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모들의 엄마역할은 단지, ‘손자녀를 돌봐준다’ 라는 개념이 아닌, ‘자발적으로’, ‘손자녀를 보다 잘 키우기 위해서’이며, 조모 자신들의 자녀처럼 잘 키워낼 수 있다는 양육효능감을 보이고 있다. 손자녀를 손자녀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조모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집에서도 제가 뭐든지 제가 좀 막 할머니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아직 할머니가 아니어서요. 아직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춤도 추고 노래 부르고 같이 뭐 게임하고 다 해요. 애들하고 제가 더 많이 놀아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생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애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할려고 또 저도 노력을 하고 또는 무슨 모임이 있어도 애들에 관한 얘기면 귀가 쫑긋해서 막 듣고 그런답니다.

(외조모 2)

## 2. 취업모의 모성이데올로기의 갈등

### 1) 취업모의 모성이데올로기

취업모 1은 조모가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결과 승진을 하게 되었고, 승진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 중이었다. 이 기간 중 소원해진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주 양육자인 조모만 찾는 자녀들을 보며 “내가 진짜 엄마일까?” 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 이렇듯, 고학력을 가지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취업모의 내면 속에서는 아직, 엄마로서 자녀들을 잘 돌봐주지 못하고 있다는 내면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 세대가 자신을 낳고 키워주었듯, 취업모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 양육이 필요한 시점에 엄마가 꼭 있어주고 키워야 한다는 모성적 이데올로기의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애 앞에서 울었어요 좀 서운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애가 너무 아팠는데 내가 만지려고 하는데 엄마 싫어 만지지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가보다 했는데 애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내가 다독여 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저리가 막 뭐라고 하니까 슬픈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너 어떻게 그럴수있나 엄마한테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조금 뭔가 엄마한테 잘못했구나 약간 느꼈는지 그 후에는 조금 나아지긴 했었는데 약간 그런것들이 심했어요. 제가 엄마로써 아직 얘기한테 다가가지 못했나 그런걸 많이 느꼈거든요. 노력이.. 노력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는.

(취업모 1)

### 2) 돌봄 시간 부족으로 인한 죄책감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문직 여성이 늘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 현대사회에서, 취업모들은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다고 한다. 위의 <표 2>를 보면 취업모 2와 취업모 6은 하루에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거의 없고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이 하루의 양육시간이 2시간 이내이다. 이러한 자녀 돌봄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자녀 양육이 전적으로 어머니 역할이라는 전통적 사고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들은 돌봄 시간 부족으로 인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자신을 ‘미성숙한 성인’, ‘엄마 같지 않는 엄마’,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엄마’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면에서 사회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와 직장파 일에 대해서는 성취감을 느끼지만 어머니 역할을 배우지도 못했고 제대로 어머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허망함을 의미한다.

저를 이모쯤으로 생각을 하고 대하는 것 같아요. 잘 때도 항상 할머니랑 자야 되고 저는 약간 잊혀지는 서운한게 있더라구요 애가 아프면 엄마를 찾는게 아니라 할머니를 찾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속상하고 제가 좀 미숙했던 것도 있는데 할머니가 제일 좋고 아빠 엄마 이런 순으로 되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상해요.

(취업모 1)

제가 어린이집 현장학습 가서 놀랜게 00이를 창밖에서 살짝 봤어요. 00가 ‘어?’ 하면서 씨익 웃는 거예요. 장난스런 표정으로 ‘엄마네’ 이런 표정으로요. 근데 제가 반에 들어갔더니, 다른 애들이 우는거예요. 우리 엄마 안 왔다고. 그리고 안 올던 애들이 엄마가 오자마자 엄마~하고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울더라구요. 우리 00이는 나 회사 갈 때도 ‘다녀오세요’ 하고 뽀뽀해주는데 할머니하고 만족하고 잘 지내나보다 했던 그런 생각이 애착이 내가 부족하나? 나와의 애착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취업모 5)

### 3. 조모의 생성감 증가와 자녀 세대와의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

#### 1) 생성감 증가

조모 2는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던 젊은 시절보다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재가 더 행복하다고 하였다. 젊었을 때에는 살기 바빠 아이들의 재롱과 성장과정을 보며 행복해할 시간이 없었는데,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 다시 자식을 키우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바람대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조부모들에게 손자녀 양육이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고 보고한 연구(이은희 등, 2009)와 같은 결과이다. 재미있는 일도, 웃을 일도 없는 노년기에 손자녀와의 생활은 즐거움, 위안, 보람과 삶의 애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외조모 1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오히려 건강해졌다고 믿고 있었다. 손자녀에게 나쁜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지 않을까, 늘 위생을 체크하게 되며, 별 할 일 없이 누워있고, 앉아있던 시간에 손자녀를 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산책을 나가게 되면서, 오히려 활력을 찾게 되어 건강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녀들을 성장, 교육, 결혼시키고, 사회에서 한 발짝 물러선 중년말기 이후에 친구들과 만나기와 종교생활 등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양육에 참여는 젊은 시절의 자신들로 돌아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즐거움을 느끼는 조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친조모 3은 키웠던 손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어 바쁘게 되어 조모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 없게 되

자, 지금은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되며 예전에 손자녀들이 어렸을 때가 좋았다며 회상했다. 이는 손자녀가 어렸을 때는 생성감이 증가하지만 손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다시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애들하고 있어야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요. 애들이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지. 애들 없으면 안돼요.

(외조모 2)

근데 참 이상한게요 전에는 제가 엄청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애기 키우는 육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감기나 이렇게 아파서 누워 본 일이 없어요. 그 전에는 엄청 많이 아파갔고 죽는다 했어요. 못 산다고 그리고 한 번 아프면 일어나질 못하고 그랬는데 조금조금 좋아져 가지고 00이 보면서 오히려 건강해져서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감기나 이런 거 아파서 누워 본 일이 없어요. 애기 키우면서.

(외조모 1)

다투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며느리가 알아서 사오고 나는 뭐 소독만 하고 뭐 그날 애 씻기고 그러니까 작은 애 네 살 먹었을 때까지 내가 데리고만 갔지. 며느리가 자는 동안만이라도 편히 지내시라고 잠 좀 편히자라고 나는 그 때는 뭐 우울증이나 이런건 몰랐어요 근데 애들이 커가는 정이고 나하고 있고 나하고 혼자 따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은 버스타고 와서 그 시간 되면 애를 오기 전에 애네 집 좀 정리해 주고 그리고, 애들 받으러 가지. 아이들이 크니까 우울한 기분이 들더라구요. 몸은 힘들어도 결국 다 키웠는데, 옛날에 왜 애미 소가 소 자식을 젖을 안 먹이면 불안해하듯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애들이 크는 과정이니까 내가 외로워도 어쩔 수 없지.

(친조모 3)

## 2) 자녀 세대와의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

손자녀의 양육을 위해 결혼한 성인자녀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성인자녀들을 결혼 시킨 후 예전과 같이 성인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일상을 보내는 일은 부모로써 행복한 일이며, 자녀의 결혼으로 인해 다소 소원해질 수 있는 시기에 자녀들과 친밀감을 유지하며 생활한다는 것이 무척 행복하다고 했다. 공통의 화제인 손자녀 이야기를 하며 대화가 풍부해지고, 조모 2는 주말이면 성인자녀, 손자녀와 함께 외식하기, 캠핑 가기 등 여가활동을 하고 있어서 본인이 삶이 매우 행복하다고 하였다. 조모의 양육참여로 인해 성인자녀들과 접촉이 빈번해 지면서 직접적인 즐거움 뿐 아니라 가족이 더욱 화목해졌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강유진, 2011; 김은정, 정순돌, 2011a). 선행연구에서(김미혜 등, 2011) 손자녀 양육대가가 없을 경우 양육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으나, 본 연구의 조모 참여자들은 성인자녀들이 양육비로 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으며, 조모 세대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녀를 돌보아주는 것은 자녀와의 친밀감에 의의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저희가 주말에는 거의 놀러 가요 거의 한 달에 한 한 번 정도 빠질까 말까 할 정도로 뭐 캠핑도 가고 매일 같이 놀러 다니다 보니까 늘 같이 생활을 하고 그 저녁에는 이제 애들

책 읽어 주고 아빠도 아들 책 읽어 주고 제가 하나 씻기면 책 읽어주고 또 교대로 또 하나 책 읽어 주고 제가 씻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요즘은 좀 주위에서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하도 뭐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분담을 조금 하지요. 그런데 제가 (손자녀 양육을) 더 하고 싶어요.

(외조모 2)

친구들이 그래요. 양육비로 백만원 정도 받냐고요. 나는 딸이 백만원 준다고 해도 내가 안 받지만 그렇게는 못 하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딸 하나 키워놓고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아들엄마가 맞벌이하면서 나한테 늘 미안해하고 애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딸 생각은 엄마가 애 보면서 늙고 힘들고 하니깐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애하고 같이 못 있으니까 미안하고. 그런 딸 보면 더 애들을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해요.

(외조모 1)

우리 같은 나이도 지금 뭐를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오십대면. 자식들이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죠.

(외조모 4)

#### 4.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 1) 양육 부담감과 부부간의 양육갈등 감소

취업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담,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현대사회에서 육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갖게 된다. 심리적 부담감 속에서 취업모들은 아이가 아플 때 더욱 부담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조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해 심적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조모의 양육참여로 심리적 안정이 되어 직장에서 퇴근시간이 늦어도 조급해 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 퇴근 후에도 집안일에 쫓기지 않고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다가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며, 직장 업무 시간과 보육시설의 보육 시간의 간극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다른 양육자보다 조모 양육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리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 모성이데올로기를 부정하지 못하는 현대의 취업모들에게 있어서 조모의 양육참여는 스스로의 양육 죄책감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였다.

또한 부부간의 양육갈등과 부부갈등의 감소의 효과가 있다. 맞벌이 부부간에 양육의 책임을 서로에게 묻고, 때로는 방관자적인 입장인 남편의 양육태도로 인해 불만이 많이 쌓일 때도 있지만, 조모들이 도와줌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맞벌이 부모에게 있어서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남편이 해야 할 자리와 책임을 조모가 채워주었던 것이 부부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양육해주시는 조모에 대한 고마움과 죄송함 때문에 부부싸움할 일이 생겨도 참는다고 하였다. 양육에 있어서 취업모와 조모와의 관계가 부부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김은정, 2013), 조모의 양육으로 인해 취업모의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줄였다고 한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김인지 등, 2010).

마음이 너무 편해요. 엄마의 성품을 아니까 좀 믿을만하고요. 저보다 더 잘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리를 못해 음식을 별로 안해봤는데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여러 가지로 좋았던 거 같아요. 늦게 연장 근무해도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업모 1)

아이가 아파서 지켜봐야 할 때 조부모님이 옆에서 돌봐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좋았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며칠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다보니 직장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아이를 간호하기가 힘들었어요. 아이문제로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조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취업모 3)

맞벌이 부부들은 양육 부담을 서로 갖잖아요. 저는 남편에게 의지해야 하고, 남편은 저에게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께서 봐주시니까 부부갈등이 좀 적지 않았나 생각해요.

(취업모 6)

## 2)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조모 양육

취업모들은 자녀들이 핵가족사회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조모 양육을 통해 얻고 있다고 한다. 삶의 경험이 풍부하신 조모와 생활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인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녀들이 조모의 자상한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안정감을 찾고 부지런한 생활습관을 배우며, 웃어른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사회를 배우게 되며 예절을 배우고 익힐 수 있으며, 조모의 바른 인성교육과 적절하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취업모는 조모의 온화하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여, 자녀를 양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롤 모델로 생각하였다.

저는 애한테 별로 신경을 써줄만한 여유나 시간이 안되니까요. 엄마가 그런 부분(세심하게 챙겨주는 일상적인 돌봄)을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 엄마도 아이들 먹이고 재우고 그런 거 외에도 교육적인 면에 관심이 많아서 저보다는 교육적인 면에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공부라든지 그런 것도 잘 가르쳐 주시고, 케어도 잘 해주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는데, 엄마는 일찍 일어나시니까 아이들이 할머니의 습관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취업모 2)

## 5. 조모의 스트레스증가와 취업모의 낮은 양육 효능감

### 1) 여가시간의 부족과 종일양육에 대한 부담감

조모들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운동과 취미생활을 할 시간이 없었다. 조모의 일상은 어린이집이나 학원 보내주기, 준비물 챙겨주기 등의 부모의 역할로 손자녀를 양육하고, 설 새 없이 세탁, 청소, 장보기 등의 양육과 살림의 이중고를 느끼고 있었다. 아이를 양육하는 전업주부들에 비해 양육 및 가사노동 참여 범위와 신체적 활동이 많았다. 조모들은 손자녀 양육에 시간을 모두 쏟

기 때문에, 친구 이웃들과 함께 여유를 찾고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친조모 6은 며느리가 직장에서 늦게 퇴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조모 자신도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며느리가 잦은 야근으로 인해 밤늦게까지 손자녀를 돌봄으로서 많은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한다.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했던 당시의 불만으로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동거보다는 근거리로 이사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은 며느리가 가사노동을 나누게 되어 지금은 만족하고 있었다. 이는 손자녀 양육에서 모녀의 관계보다 고부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모들은 자신들이 양육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나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양육과 가사노동을 완전히 조모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취업모의 적절한 가사노동 기여가 가족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애들 때문에 애들한테 매여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할머니들이 꼭 애한테만 매여있지 않게 몇 시간 애들 가는 사이에 운동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외조모 4)

아침에라도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아침부터 애들한테 매여가지고 또 저녁 밤늦게까지 ... 엄마가 좀 일찍 왔으면 좋겠더라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애들 재우다가 내가 잠들 때도 있고. 엄마가 직장이 그렇게 어쩔 때 밤 열두시 한시 막 그렇게 와요. 밤에 겨울에 그러면 나는 또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 집에 차 끌고 가려면 애 먹어. 진짜 미끄러워서 사고 날 뻔도 했어.

(친조모 6)

근데 따로 살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좀 쌓이고 쌓이고 뭐가 좀 그렇지. 아무리 좋은 사이도 조금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깐은 조금 금이 가더라고. 그래도 말은 안하는데, 좀 그래요. 지금은 따로 사니까 애네들 엄마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때 같이 살 때는 밥까지 아침까지 다 하고 같이 살다보니까.

(친조모 6)

## 2)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조모들은 여가시간 없이 반복되는 양육과 살림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손자녀를 훈육할 때, 손자녀가 이유 없는 떼쓸 때, 밤늦게까지 손자녀들이 잠을 안 잘 때, 성인자녀들이 언어적, 정서적 지지가 없을 때, 성인자녀들이 손자녀를 두고 말다툼할 때, 손자녀가 아플 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 이러한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었다.

또한, 친조모 3은 장시간, 장기간의 양육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허전함, 상실감,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갱년기를 겪으니까 힘들 때도 있죠. 같이 재밌게 놀다가도 아이가 짜증부릴 때 처음에는 좋은 소리고 '00야! 이렇게 하면 안돼. 그만해' 라고 이야기해도 애가 계속 짜증을 부리면 이제 갱년기가 있으니까는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정말 짜증이 좀 나지요.

(외조모 5)



요즘 병원에 다녀 신경이 너무 손상이 됐다고 머리에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신경이 많이 손상됐다고 저기 뭐냐 검사하는데 이틀에 한 번씩 병원 다니니까 힘들더라고요. 얼굴도 붓고 눈도 더 침침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심해지는거 같애.

(친조모 6)

우리 며느리는 착하고 좋아요. 그런데 살갑지가 않아. 나는 성격이 좀 그런거를 바라는 편이고. 한 번은 내가 그랬어. 내가 애들 옷 사오면 사온 사람 기분이 그렇잖아. 말을 해야 알지 해야 사온 사람이 기분이 좋지. 그래서 나 앞으로 이러면 안 해 (애들을 안 키워줘.)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아 어머니 예쁘네요. 그러더라고요.

(친조모 6)

힘들다고 봤을 때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내 자신이 내가 애네들을 키르다보니까 좀 며칠만 이렇게 안 봐도 그제 보고 싶은거야 근데 애미들은 모르지. 애미는 배 아파서 낳지만 그제 좀 그렇더라고. 나는 그 때는 뭐 우울증이나 이런건 몰랐어요.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몸은 힘들어도 결국 내가 다 키워서 내가 엄마처럼 다 했는데, 이젠 아이들이 다 커버렸어.

(친조모 3)

### 3) 의존적인 취업모의 낮은 양육 효능감

취업모들은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부모역할의 지식과 이해도는 높으나, 행동적인 측면에서의 양육기술이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즉,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한 활동, 건강, 훈육과 생활지도, 교육 등 자녀양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실제 수행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알지도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교육적이기 위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여러 가지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깨닫고 든든한 조모에게 자녀 양육을 미루기도 한다. 조부모에게 양육을 미루는 것에 대해 보고 (김윤숙 등, 2012)와 수동적, 의존적으로 변해가는 취업모(김인지 등, 201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저는 애를 많이 데리고 있어 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되는지 그런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어른처럼 대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게 있어요. 좀 무섭게 할 땐 되게 무섭게 하고 겁을 줘서 말하기도 하고, 잔소리를 계속하게 되고. 육아법이런거에 맞춰서는 못하고 육하면서 화낼 때는 화내고 매로 혼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혼내면 안돼라고 그러세요. 나는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 방법이 나은거 같아서 이렇게 혼냈는데 왜 주변사람들은 내가 다 틀렸다고 하지? 미숙한 사람으로 취급받는거 같아요. 육아에 대한 미숙한 사람으로

(취업모 1)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살림도, 양육도. 저희가 부모님께 의지하여,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 미루기도 하죠. 집에 와서 서둘러 밥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 책 읽어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할 수 있어서 좋지만, 살림하는 것도 아이 키우는 것도 엄마가 훨씬 나아요. 전 직장 다니는게 훨씬 쉬운거 같아요.

(취업모 4)

## 6. 두 명의 엄마와 충돌하는 가치관

### 1) 손자녀의 엄마로서의 고뇌

조모들은 양육에만 전념하는 젊은 엄마들에 비해 양육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낀다고 했다. 훈육하는 방법, 손자녀 성장발달에 알맞은 음식, 손자녀 세대에 맞는 교육등 알고 싶은 것은 많지만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 성인자녀에게 물어보거나 예전에 자녀들을 키웠던 기억으로 양육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신들로 인해 손자녀들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조모들이 양육을 주도하면서 생기는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연구들과 일치한다(노상경, 2006; 김은정, 정순돌, 2011a). 새로이 변화하는 양육정보와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손자녀의 나쁜 습관을 고쳐줄 방법을 얻는 것도, 젊은 엄마들의 양육방식과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하소연할 곳도 상담을 할 곳도 좋은 양육 정보를 얻을 곳도 없다고 했다. 손자녀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과 부모참여수업은 거의 부모들을 위한 것이고, 손자녀들의 사회관계와 교육정보를 위해 손자녀 친구들의 어머니들과 소통을 하고 싶지만, 나이의 차이로 인해 융화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부모 역할을 하는 조모가 손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고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애네들 우는 소리 안나고 잘 놀고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둘이 싸울 때가 있거든. 잘 놀다가도 악쓰고 싸우고 동생을 막 때리고 하거든 괜히 심통이 나서는... 거기에 또 애들 싸우는 것에 스트레스 받아요.

(친조모 6)

힘든 것은 애기 둘째 삼 개월 딱 되고 데려다 놓고 첫째가 손을 빨았어요. 손을 빨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걸 못 빨게 하느라고 별 짓을 또 다 해봤지요.

둘째도 돌봐야 하는데 첫째는 내 살이 달아야 발을 올리거나 안아줘야지 잠을 자는데 내가 있으니까 이제 애를 안지 말고 저를 안으라고 이렇게 양쪽에 두고 잠을 잘 때 그럴 때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첫째는 애기라서 열시에서 한 한 시 사이에는 엄청 울어요 진짜 울어요 그냥 갓난 아기 때부터 그냥 그냥 한 번 울어야 잠이 깊이 들어서 아침 네 시까지 자요 그럴 때 애는 재워냈는데 애 때문에 또 깨고 애는 또 일어나서 애가 올면 애는 또 깨고 그럴 때가 좀 힘들었어요.

(외조모 1)

저번에는 생일파티를 가는데 엄마들이 있는데까지 들어갔어요. 엄마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싶었는데 자기네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전 연락을 했는데 왜 연락을 안 주셨냐구 좀 섭섭하더라고요. 할머니라 안 했구나 생각에 섭섭했어요. 애들한테 신경을 써서 도움이 되도록 할려고 노력을 해요.. 무슨 모임이 있어도 애들에 관한 얘기면 귀가 쫑긋해서 막 듣고 그런답니다. 요즘은 정보가 빨라야 하는데 그거 잘못할 까봐 아무래도 세대가 틀리다보니.(걱정되요)

(외조모 2)

애기들 아래가 허물 때 옛날에 분 같은거 엄마들이 발랐잖아요. 이런걸 바르면 되는데 지금은 바르면 안된다는거예요. 연고같은거 발라주래요. 분은 뭐 안좋다고 뭐가 어쩐다고 전혀 못 바르게 하더라고요. 큰 애가 손을 빨았어요. 손을 빨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걸 못 빠르게 하느라고 별 짓을 다해봤는데도 잘 안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곳도 없죠.

(외조모 1)

## 2) 엄마 답지 못한 것에 대한 고뇌

취업모들은 책, 인터넷정보, 직장과 어린이집 등의 부모교육의 기회가 많아서 많은 양육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실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자녀 돌봄 시간이 거의 없거나, 2시간 이내로 자녀들을 안아주고 이야기하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해 하였다. 자녀를 위해 해 주고 싶은 것도 많고, 적어도 또래 친구들이 하는 것 만큼은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걱정들로 인해 취업모들은 조모들이 좀 더 현대적인 양육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우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손자녀 양육으로 힘든 조모를 생각하면 이야기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나 자료는 많아도 자녀들에게 올바른 양육을 위해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은 잘 하고 있으나 가정생활에서 엄마로서 해야 할 일들을 지식과 정보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엄마 답지 못한 엄마라고 스스로 고뇌하고 있다.

제가 00시 건강과정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강의라든지, 저희 사내에 들어와서 부모교육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애들 키우다가 모르는게 있으면 인터넷 찾아서 검색하고 뽀뽀뽀 119 이런 책 보고 000 소아과 검색해서 보고 아니면 저희 언니가 있어서 언니가 애 다 키우고 잘 아니까 언니를 통해서(정보를 얻었죠.)

(취업모 6)

이유식은 제가 했어요. 주말에 재료를 사다놓고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소분해서 얼린다던지해서 주중에 줄 수 있도록 했어요. 고기같은 것들은 편으로 잘라서 먹기 편하게 재운다던지요 00 이 이유식 만큼은 제가 챙겼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취업모 5)

## 3) 양육태도의 충돌

조모들의 양육 태도는 온정적이며 손자녀의 정서적인 면을 중시하고 있고, 취업모들은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한계 설정으로 제 시간에 자고 먹고 놀고 학습하는 규칙적인 자녀가 되길 원하는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다. 조모의 생각은 취업모들이 양육경험 부족으로 인해 자녀들의 정서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을 할 때가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조모 자신들의 양육의 경험을 못미더워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취업모들은 자녀들이 조모에게 사랑만 받고 자라다가 버릇없어지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생활을 못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조모의 허용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자녀들이 제대로 된 습관 형성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조모와 취업모 모두 양육태도면에서 해야 할 방법론을 인지하고 있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취업모들이 짧은 시간과 기간 내에 자녀의 습관 형성과 훈육을 하기 위한 서두름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모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잘 크게’ 되는 것이 손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취업모는 ‘좋은 습관 형성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독립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미리 훈련하는 것이 좋은 양육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가 이미 애들을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것도 많이 하고 컴퓨터도 있고 여기저기 통해서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론뿐이에요. 컴퓨터로 알아보니깐 다른 엄마들은 이럴 때 이렇게 해하며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내가 다 이렇게 키워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우길 때 그럴 때 힘들어요.

(외조모 1)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말 잘듣는데. 그런데, 저 아빠는 애들을 혼내야된다 말 안들으면 때려야된다그래. 난 절대 그게 아니거든. 우리 손녀들 한 번도 때린적 없는데 저 아빠가 한 번은 때렸더라구. 애를. 근데 너무 속상해서 잠시 나갔다 왔지. 집 한 바퀴 돌고 들어왔어.

(외조모 4)

엄마가 애들한테 좀 허용적이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다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애기가 업어달라고 막 부르면 제가 볼 땐 엄마는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업어주세요 계속 애가 해달라는대로 해주는 그런 그래서 엄마 그렇게 다 해주면 안 된다고 요즘에는 그런 것 까지 같등이 있어요. 또한 웬만하면 매를 안 대려고 하는데 잔소리가 너무 많아져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저희 신랑은 너무 애한테 화내는거 아니야 이런식으로 뭐라고 하는거예요 저희 엄마는 가끔 엄마도 매를 드시긴 하는데 저희 엄마는 짧게 혼내고 매로 딱 무섭게 혼내고 끝내거든요 근데 그래도 혼내시긴 하는데 제가 혼내면 또 뭐라고 하시는거예요 그렇게 혼내면 안 된다고하면 나는 어떻게 혼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취업모 1)

저는, 아이가 자고 일어나 피곤하지 짜증을 부리면 아이에게 왜 짜증을 내는지 언어로 표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머니는 자고 일어나 피곤해서 짜증을 부리는 것이니 무조건 받아주고 달래주어야 한다고 하세요. 저는 짜증을 부리는 것도 버릇이 될 수 있으니 스스로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어머니는 자녀가 어리니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세요.

(취업모 4)

#### 4) 양육 기술의 충돌

취업모들은 조모들이 이유식 단계에서 손자녀의 월령을 고려하지 않고 기억을 더듬어서 비체계적으로 만들 때, 소독과 청결과 위생에 대해 소홀하다고 생각될 때에 조모와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취업모는 조모에게 자신의 양육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조모의 견해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했다.

수면문제를 보면 취업모는 규칙적인 시간에 잘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마냥 운다고 해서 안아주어서는 안되고 수면리듬을 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조모의 생각은 손자녀가 불편하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므로 잠들 때까지 안아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습관 문제에서 취업모는 영아기시기부터 식습관을 잘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책에 나와있는 대로 발달단계에 맞는 음식을 먹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조모의 생각은 간이 없는 음식은 잘 먹지 않지

때문에 이유식을 먹여야 하므로 손자녀 입맛에 맞게 간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이렇듯 조모와 취업모의 양육 기술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조모는 ‘다 키워보니 똑같애’, 취업모는 ‘요즘 애들은 달라요’ 라고 서로의 생각만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타협하지 않고 조모는 조모의 방식대로 취업모는 취업모의 방식대로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애들이 간이 없으면 이유식도 안 먹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소금을 먹이면 안된다는거예요. 그런데 애가 안 먹는데 어떻게라도 먹게 하려고 간을 하면 막 야단하는거예요. 그래서 애들 모르게 살짝 넣어서 먹였죠.

(외조모 1)

그러니까 애가 좀 아프다라고 하면 저희 신랑은 무조건 병원에 가야한다 밤중이라도 무조건 병원에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제 엄마는 괜찮아 안 아파 괜찮아 그냥 넘겨라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도 엄마는 괜찮아 그 정도는 넘겨도 돼 이렇게 병원 안 가도 돼라고 하세요. 그런 예를 들면 간단하게 그런거고 먹는거 것 같은 것도 애기들 진짜 안 먹어가지고 저희 첫 째는 정말 안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엄마가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또 아버지랑 다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일일이 세세히 애 한테 그런건 못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취업모 1)

어머니가 잘 먹이시지만 먹이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경우에도 개월 수에 따라서 먹이면 안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 먹고 자랐는데 뭐 우리 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고 하실 때.(어려워요).

(취업모 6)

취업모는 자녀의 교육적인 문제에서 조모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의 또래들과 비교해서 사교육과 성장 발달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조모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취업모는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리 경쟁사회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려 하고, 조모는 ‘인성이 잘 자라나기 위해’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의 조부모님께서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많이 가르치지 말라고 하시고 학원이나 사교육을 너무한다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다른 엄마들보다 많이 가르치지 못하는 것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은데, 기본 가르치는 것에도 많이 가르친다면서 교육에 말씀하실 때 힘들었어요.

(취업모 3)

둘 같은거 이런거 다 만지고 다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하는데 어머니가 가끔 너 그거 만지면 병 걸려 지지야 이렇게 겁을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혹은 더러운게 아닌데 자연인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가 더러워 지지야 라고 말할 때 그 자리를 빨리 정리하죠.

(취업모 5)

아무래도 양육이 보육이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세 가족이 저는 00 아 이건 A야 라고 말하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볼썽 B야 라고 이렇게 들어온다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런거(차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참조 가만히 있 죠 거의 대부분 아예 (어머니한테) 보육에 대해서는 아예 말 안 해요.

(취업모 5)

이와 같이 손자녀를 키우는 조모와 자녀를 맡기고 있는 취업모, 두 명의 엄마의 양육가치관으로 인해 충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맞벌이 가정의 조모의 손자녀 양육의 참여의 의미와 양육갈등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손자녀 양육을 통한 조모의 이중역할”, “취업모의 모성이 데올로기의 갈등”, “조모의 생생감 증가와 자녀세대와의 친밀한 유대관계형성”,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증가와 취업모의 낮은 양육 효능감”, “두 명의 엄마와 충돌하는 양육 가치관” 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맞벌이 가정의 조모 손자녀 양육참여의 형태는 손자녀 양육을 통한 조모의 이중역할과 취업모의 모성이데올로기의 갈등이다. 조모의 이중역할이란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역할과 손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이다. 성인자녀의 결혼이라는 독립에도 불구하고 성인자녀가 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속적인 엄마 역할과 손자녀의 일상적인 돌봄에서부터 놀이와 교육까지 손자녀의 엄마 역할을 하는 이중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으로 독립시킨 후 삶의 여유를 찾으려 하기 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서 삶의 보람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조모들은 베이비붐세대로 청·장년 시절에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적 사태와 정리해고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게 되었으며(강상경, 2012), 그들의 성인자녀에 대한 걱정에도 영향을 미쳐 성인자녀들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에서의 성장을 위해 자발적 양육참여를 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성인자녀의 사회적인 성공을 위한 노년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 대리만족을 얻음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성공적인 노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모들이 “아직은” 노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 사회적 시대상을 볼 수 있다.

취업모들은 모성이데올로기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모성이데올로기란 어머니는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어린 시기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신의 요구보다는 자녀의 요구를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신념이다(김인지, 2005). 본 연구의 취업모들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자신과의 애착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며 자신들로 인해 어린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취업모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한 역할분담으로 인한 양육부담감과 양육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김나현 등, 2013; 양소남, 신창식, 2011). 취업모는 자녀교육열이 매우 높고 자녀의 성공 여부에 따라 능력 있는 어머니로 평가되는 사회

풍토 속에서 자녀의 돌봄 시간과 자녀교육시간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써 조모 양육을 선택하였다. 모성이데올로기의 가치관 속에서 자녀들을 자신과 가장 가까운 모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조모의 양육을 통해 양육에 대한 죄책감에서 조금 벗어나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맞벌이 가정의 조모 손자녀 양육참여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조모들의 생성감(generativity) 증가와 자녀세대와의 친밀한 유대관계형성, 취업모의 양육 부담감 감소가 있다. 조모들의 손자녀 돌봄은 뜻하지 않는 과업을 맡는 것으로, 편안한 노후의 삶을 지향하는 조모들에게 새로운 부담감을 갖는다고 하지만(김은정, 2011), 본 연구결과 자신의 건강이 좋아짐을 느끼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 양육의 즐거움으로 인해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이영숙, 박경란, 2013; 정재원, 김문정, 2010; 전해정 등, 2013), 가족관계 형성, 가족의 역사 유지 기회,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Langoschi, 2012) 긍정적인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생성감(generativity)이란, 다음 세대에 게 책임감 있는 부모나 지원자,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베푸는 돌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다(Erikson, 1963). 조모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 조모의 생활 만족도 예측요인으로 생성감이 중요한 요인이다(Thiele & Whelan, 2008). Row와 Kahn(1998)은 성공적인 노화의 구조란 질병과 장애의 위험 최소화, 신체 정신적 기능 유지, 삶의 관계 지속하기라고 하였다. 손자녀를 돌봄으로써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여 신체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고, 자녀세대와 손자녀 세대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생성감을 가지는 것은 성공적인 노화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조모 양육참여는 조모와 성인자녀간의 자녀세대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다. 손자녀 양육을 위해 거리적 결속력과 접촉적 결속력이 높아져 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 유지되었는데, 여성노인들에게 있어서 원만한 가족관계는 생활만족의 요인이라고 하고 있어(정순돌, 2007), 손자녀 양육을 통한 친밀한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노년의 생활만족도가 높이는 일이라 사료된다.

또한, 조모의 양육 참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모의 역할이 많은 현실 속에서 조모의 양육참여로 인한 부부갈등과 양육부담감 감소는 취업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의 갈등을 감소시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취업한 기혼 여성들 스스로가 자녀양육과 교육의 표준모델을 전업주부의 스타일에서 찾는다(양소남, 신창식, 2011).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란 전업주부처럼 자녀의 학습을 관리하고, 등하원을 챙겨주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환경속에서 취업모는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조모의 양육참여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의 감소가 있을지라도, 자녀양육과 교육방법을 전업주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인지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맞벌이 자녀들도 성장함에 따라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부모의 맞벌이와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며, 맞벌이 가정의 조모양육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고 부부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취업모에 대한 배려, 관심,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맞벌이 가정의 조모 손자녀 양육참여의 부정적 효과로는 조모의 양육 스트레스 증가와 취업모의 낮은 양육효능감이다. Sampson과 Hertlein(2015)의 연구에서도 손자녀 양육은 시간의 소모가 크며 자신을 위해 투자할 시간이 없으며 억울하고 부정적인 정서가 든다고 한다. 조모들

의 양육스트레스는 우울감과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오진아, 2006; 이지연 등, 2008), 건강문제의 악화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Kelly, Whitley, & Campos, 2010; Williams, 2011). 조모들이 필요할 때 맡길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배지희 등, 2008), 시간제 양육형태가 조모의 양육만족도를 높이고(Bowers & Myers, 1999), 양육권이 있는 조손가족보다 공동양육하거나, 비거주형태의 양육하는 조모의 만족도가 더 높고(McGowen et al., 2006), 양육을 담당하는 조모들이 비양육 조모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우울감과 양육스트레스,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이지연 등, 2008), 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여가나 취미생활, 혹은 잠시 양육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손자녀의 훈육과 교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들의 모임을 활성화가 도움이 될 것이다. 시간제로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과 같은 지원, 내손주.com이라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인터넷카페, 인천광역시 육아지원센터에서 실시된 ‘손자 돌보미 조부모 교육 강좌’ 와 같은 손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를 지원해주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 손자녀와 상호작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화 구연법, 동요와 율동, 종이접기, 아동발달 및 심리, 문제행동지도 및 대화법등과 같은 강좌를 통해 양육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교육 관련 정보를 주변의 젊은 엄마들로부터 제공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표출한다(노상경, 2006).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은 비양육 조모들과도 조화되지 않고 있어(Backhouse & Graham, 2012), 고립되고 단절될 수 있으므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을 위해 많은 홍보를 통해 조모 양육 모임과 같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반해 취업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낮은 양육효능감을 보이고 있다. 조모가 손자녀의 부모 역할을 대신 해줌으로서 양육을 미루게 되고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발달되어야 할 양육의 기술과 효능감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조모에게 의지하게 되어 조모의 끊임없는 손자녀 양육을 독려하는 현상을 낳게 될 수 있다.

넷째, 양육 갈등 측면에서 두 엄마가 충돌하는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조모들은 손자녀를 자신의 자녀처럼 대하며 키우는 엄마로서의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손자녀의 할머니로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손자녀의 엄마처럼 손자녀를 양육하지만, 여러 환경들이 조모가 양육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좀 더 나은 양육법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 양육자인 조모와 돌봄 시간이 부족한 취업모인 엄마와의 양육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첫째, 양육 태도면에서 조모의 이상적인 양육은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온정적인 양육태도로 손자녀의 정서에 관심을 두고 양육하는 반면 취업모는 절제된 양육과 훈육으로 일찍부터 좋은 습관 형성하여 독립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미리 훈련하는 것이 좋은 양육이라고 믿고 있다. 둘째, 조모와 취업모의 양육 기술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조모는 ‘다 키워보니 똑같애’, 취업모는 ‘요즘 애들은 달라요’ 라고 서로의 생각만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타협하지 않고 조모는 조모의 방식대로 취업모는 취업모의 방식대로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두 엄마의 가치관의 차이는 갈등의 내용적 측면으로 볼 때 가치 갈등에 속한다. 가치갈등이란 갈등을 내용적 측면에서 분류해서 보았을 때 어느 것이 옳고 가치 있는지, 무엇이 바람직하고 도덕적 인지에 관한 신념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다(나은영, 2006). 두 엄마의 공통적인 양육의 목적은 같다. 그러나, 조모의 양육가치관과 취업모의 양육가치관 중



에서 어느 것이 가치 있고 바람직한 것인지 두 세대의 신념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나은영(2006)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두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을 찾고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며, Ruble과 Thomas(1976)는 갈등의 해결 접근 방식을 회피, 수용, 타협, 협동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취업모와 조모가 모두 말하고 싶어도 참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을 때, 회피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결방법은 표면상으로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의 잠재성은 여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Ruble과 Thomas(1976)는 갈등의 해결 접근 방식 중 협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협동이란 상호문제 해결을 통하여 갈등의 양쪽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관심을 전부 충족시키는 것이다. 상호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관련 정보를 개방하여 서로가 양육의 가치관을 좁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내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힘이 들 수 있으므로 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양육에 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모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조모 - 성인자녀간 집단상담,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교육 등의 조모 - 맞벌이 자녀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가족 간에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증대가 조모와 성인자녀 세대 간의 양육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모세대와 취업모 세대가 스스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사자성어처럼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토대로 정서적, 언어적으로 지지해준다면, 갈등의 요소가 줄어들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 조모들과 취업모를 대상으로 심층적 면접을 통해 양육 경험과 갈등을 탐색해 보았다.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와 그의 자녀 세대 취업모를 같이 심층면접 함으로서 시간적, 공간적인 동시성을 경험하고 있는 두 세대의 양육참여 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았다는 것에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베이비붐세대에 속하는 조모들은 자녀들의 부모 역할과 손자녀들의 대리부모역할로 이중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생성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와의 친밀한 유대관계에 큰 의미를 두고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취업모들은 모성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조모의 양육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안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아직 조모의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 양육시간과 양육기간과 비례하는 어려움, 취업모의 낮은 양육 효능감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양육태도와 양육기술에 대한 두 엄마의 다른 가치관의 충돌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 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조모와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취업모가 소득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조부모 양육에 대한 많은 연구가 연구 참여자들이 조모에게만 집중되어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조모, 취업모의 의견과 고충을 이해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조모와 취업모들의 양육참여와 갈등에 대한 경험은 서로의 입장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건강한 가족관계 정립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향후 다양한 지역과 소득계층의 조부와 조모를 포함하는 조부모와 취업모의 경험, 조부모세대와 취업부와 취업모를 포함하는 성인자녀세대의 양육경험, 갈등을 극복한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기정, 박수선 (2007). 국내 맞벌이 부모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부모교육연구**, 4(2), 123-143.
- 강상경 (2012).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세대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베이비 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43(4), 91-119.
- 강유진 (2011).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돌봄 상황, 양육지각, 자원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73-97.
- 김정은, 장연집 (2008). 취업모의 첫 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질적연구**, 9(1), 31-43.
- 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 (2013). 어린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88-200.
- 김미영 (200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취업모를 자녀로 둔 조모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혜, 성기옥, 팽경희, 최희진, 최소영 (2011).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부모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1(4), 905-923.
- 김성경 (2011). 기혼 취업여성의 특성이 일-가족의 긍정적 전이 및 부정적 전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3, 69-94.
- 김윤숙, 전연우, 조희숙 (2012). 할머니의 양육경험 이야기: 자녀 세대와 손자녀 세대 양육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185-208.
- 김윤주, 방미란 (2011).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의 경험: 내러티브 탐구. **질적연구**, 12(1), 59-72..
- 김은경 (2014). 부부관계특성이 둘째 자녀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199-217.
- 김은정 (2011). 영유아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취업모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 (2013). 맞벌이가정 손자녀 양육지원 조모와 취업모 간 관계유형 및 관계의 질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0, 93-123.
- 김은정(2014). 맞벌이가정 취업모가 인식하는 손자녀 양육지원 조모와의 관계 및 영향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84, 163-183.
- 김은정, 정순돌 (2011a). 손자녀 대리양육 조모의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취업모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1, 177-213.
- 김은정, 정순돌 (2011b). 맞벌이 가정 영유아 손자녀 양육조모의 삶의 만족도: 양육 보상감,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4, 285-310.
- 김은주, 서영희 (2007).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실제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75-192.
- 김인지 (2005).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성이데올로기와 부모역할 만족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인지, 이세인, 이숙현 (2010).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세대 간 양가감정에 관한 질적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8(5), 73-85.
- 김종숙 (1997). 가족갈등의 이론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10(1), 307-323.
- 김종숙 (2002). 한국사회의 조부모 역할.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36, 39-43.

- 김중훈, 양소영, 성지현 (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매개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4(1), 87-102.
- 나은영 (2006).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울: 한나래.
- 남효정, 이숙현 (2011).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정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107-121.
- 노상경 (2006). 손자녀 대리양육지원에 대한 조모의 연구. **교육연구**, 40, 23-44.
- 노성향 (2010). 취업여성의 영아 보육 현황과 육아 지원 방안. **한국아동복지학**, 33, 111-128.
- 마미정 (2008).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부모교육연구**, 5(1), 75-116.
- 박보영 (2006).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가족정책: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상황과 복지**, 22, 229-153.
- 배지희, 노상경, 권경숙 (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 자녀 양육현황 및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379-410.
- 백진아 (2011). 중장년 기혼 여성의 손자녀 양육 경험- 돌봄 공백의 가족주의적 대응. **담론** 201, 16(3), 67-93.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서미정 (2011).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후속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5(1), 127-148.
- 안재진 (2011). 부의 양육참여가 출산 후 초기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부관계의 질을 매개로. **한국아동복지학**, 35, 127-159.
- 양미경 (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양성은 (2006). 가족의 일상생활 연구를 위한 질적방법론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4(8), 171-179.
- 양소남, 신창식 (2011).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양립 고충. **보건사회연구**, 31(3), 70-103.
- 오경석 (2010). 재미한인노인의 생성감과 손자녀 양육경험.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1), 1-21.
- 오진아 (2006).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지**, 12(3), 368-376.
- 원서진 (2011).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3세대 가족과 비3세대 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33-56.
- 이영숙, 박경란 (2013). 조부모됨에 대한 주관적 경험 연구. **주관성 연구: Q방법론및이론**, 26, 109-125.
- 이영환 (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동권리연구**, 12(2), 189-210.
- 이은희, 하주영, 이정란, 황은희 (2009). 맞벌이 자녀를 둔 조모의 손(녀) 돌봄 경험. **질적연구**, 10(1), 1-13.
- 이정원 (2007).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합리적-가치적 선택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원, 유해미, 김문정 (2014). 1명의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정책연구**, 8(1), 47-80.
- 이재림 (2013).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 세대 간 지원 제공 및 수혜

- 의 의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1-24.
- 이지연, 정경미, 김원경 (2008). 중산층 양육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여성심리학회지**, 13(3), 325-341.
- 이하정 (2005). 조모세대와 모세대간의 자녀양육문화 변화에 관한 질적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4(1), 141-167.
- 이현지, 윤은주 (2011). 영유아 양육책임유형에 따른 조모의 삶의 만족도와 자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4), 179-200.
- 임현주, 이대균 (2013). 부부특성 및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후속출산에 미치는 효과: 모의 취업과 후속출산계획 여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유아교육연구**, 33(2), 121-144.
- 전혜정, 조규영, 박민경, 한세황, Wassel, J. I. (2013). 손자녀 양육자료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3(3), 515-536.
- 정순돌 (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7(4), 829-845.
- 정은희, 최유석 (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5-34.
- 정재원, 김문정 (2010). 손자녀 양육여부에 따른 조모의 생활만족 및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3), 288-296.
- 조윤주 (2012). 손자녀 양육 참여 노인의 활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의 생성감과 가족 지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2), 267-294.
- 주은선, 김사현, 김민성 (2014). 한국부모의 미취학아동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0(2), 367-400.
- 최인희 (2014). 손자녀 돌봄이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돌봄에 대한 자발성과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6(4), 118-138.
- 통계청 (2005). **아동연령 및 부부취업 상태별 주돌봄자**.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중심으로**. 서울: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홍승아(2010).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스웨덴, 영국, 한국을 중심으로. **젠더리뷰**, 16, 66-77.
- Bowers, B. F., & Myers, B. J. (1999).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8(3), 303-311.
- Bundy-Fazioli, Fruhauf, C. A., & Miller, J. L. (2013). Grandparents caregivers' perceptions of emotional distress and well-being.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6(5), 447-462.
- Creswell, John. W. (2010).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질적방법론**(조흥식, 정선숙,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원판 2007).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Giorgi, A. P. (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 282), 235-260.
- Grzywacz, J. G., Almeida, D. M. & McDonald, D. A. (2002). Work-family spillover and daily reports of work and family stress in the adult labor force. *Family Relations*, 51(1), 28-36.
- Huberman, A. M., & Miles, M. B. (1994).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methods. Denzin, N. Y., & Lincoln, Y. S.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428-444). Thousand Oaks, CA, US: Sage.
- Irving, S. (2009).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 their edition **질적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박혜준, 이승연 공역). 서울: 학지사.
- Kelly, S. J. (1993). Caregiver stress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mage: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5(4), 331-337.
- Kelly, S. J., Whitley, D. M., & Campos, P. E. (2010).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Results of an intervention to improve health outcom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42(4), 379-386.
- Kvale, S. (1996). *Interviews -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housand Oaks, CA: Sage.
- Langosch, D. (2012). Grandparents parenting again: Challenges, strengths,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Psychoanalytic Inquiry*, 32(2), 163-170.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Lumpkin, J. R. (2007). Grandparents in a parental or near-parental role: sources of stress and coping mechanisms, *Journal of Family Issue*, 29(3), 357-372.
- MaGowen, M. R., & Ladd, & Strom, R. D. (2006). On-line assessment of grandmother experience in raising grandchildren. *Educational Gerontology*, 32(8), 669-684.
- McBride, B. A., & Mills, G. (1993). A comparison of mother and father involvement with their preschool age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4), 457-477.
- Minkler, M., Fuller-Thomson, E., Miller, E., and Driver, D. (1997). Depression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rchives of Family Medicine*. 6(5), 445-452.
- Musil, C. M.(1998). Health,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grandmother caregiver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5), 441-455.
- Musil, C. M., Warner, C. B., Zauszniewski, J. A., Jeanblanc, A. B., & Kerher, K. (2006). Grandmothers, caregiving, and family function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1(2), 89-98.
- Musil, C. M., Gordon, N. L., Warner, C. B., Zauszniewski, J. A., Standing, T., & Wykle, M. (2011). Grandmothers and caregiving to grandchildren: Continuity, change, and outcomes over 24 months. *Gerontologist*, 21(1), 86-100.
- Reitzes, D., & Mutran, E. (2004). Grandparenthood: Factor influencing frequency of grandparent-grandchildren contact and grandparent rol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ervice*, 59(1), 9-516.
-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Ruble, T. L., & Thomas, K. W. (1976). Support for a two-dimensional model of conflict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6(1), 143-155.
- Sampson, D., & Hertlein, K. (2015). The experience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GrandFamilies: The Contemporary Journal of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2(1), 73-96.
- Sands, R. G., & Goldberg-Glen, R.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among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Family Relations*. 49(1), 97-105.
- Thiele, D., & Whelan, T. A.(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grandparent satisfaction, meaning, and genera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6(1), 21-48.
- Williams, M. N. (2011). The changing roles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1, 948-962.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ifferent views of grandparent's that are rearing children from the grandmother and working mom as co-caregivers by studying conflicts and the experience made by grandmothers by rearing children through a phenomenological approach, and to help to build healthy relationships and furthermore to promote a healthy educational environ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six working mothers from a child care center in Gyeonggi, and their six grandmothers who were rearing grandchildren through in-depth interviews, emails and observation based on the instruction of semi-structured interviews. For analysis, a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is used. As a result, 78 meaning units, 15 sub-elements and 6 theme categories were drawn. Theme categories were (1) grandmothers' rearing experience; perform a double-role through grandchildren-rearing (2) working moms' rearing experience; conflicts over ideologue of motherhood (3) grandmothers' rearing positive effect: increasing grandmothers' efficacy and intimate relationships with grandchildren (4) working moms' rearing positive effect: reducing working moms' children-rearing stress (5) negative effect: increasing grandmothers' children-rearing stress and working moms' low children-rearing efficacy (6) rearing conflicts: the two mothers' conflicts over children-rearing values. Through the study, it implies that social intervention is needed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two mothers over the rearing attitudes and methods as understanding and intervention is needed.

▶ *Key Words* : *phenomenological approach, grandchild-rearing, conflicts in child-rearing, grandmother*

논문투고 2015. 06. 29.  
수정원고접수 2015. 07. 17.  
최종게재결정 2015. 07. 25.